

Global Report

스마트시티로 진화하기 위한 바르셀로나의 급진적인 시도 (자동차 수 억제 정책)

1. 개요
2. 본문
3. 결론

1. 개요

붐비고 바쁜 바르셀로나의 중심에는 특이한 침묵이 있습니다. 작은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의 웅얼이 소리와 새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교통량이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되는 공간은 놀이터, 나무 및 산책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슈퍼블록(super blocks)"은 자동차 교통으로 인한 소음과 공해의 거리를 없애기 위한 급진적인 계획이며, 그렇지 않으면 고도로 오염된 공기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1 > “슈퍼 블록”에는 자동차가 주차되었던 장소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사례가 다른 도시의 좋은 예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슈퍼 블록은 6개뿐이지만 시의회는 수백 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 블록은 필수 차량만 통과 할 수 있고 시속 10km의 속도로만 통과 할 수 있는 9개의 인접한 블록 그룹으로 구성된 일종의 도시 블록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일부 도시 주민들은 집 앞 거리에 차량을 두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 반대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고객의 유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일부 지역 사업주들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비슷한 개념을 도입하고자하는 시애틀과 같은 다른 도시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도시 공공 공간의 최대 60%를 차지합니다." 바르셀로나의 도시 계획 부시장인 Janet Sanz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공간을 재분배하고 균형을 맞추는 순간 그 때까지 그 지역에 접근 할 수 없었던 구성원의 접근이 용이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2. 본문

2.1 개인의 사생활 정보와 공공의 이익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차량 통행을 변화시킬 급진적인 계획을 진행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감시 카메라, 센서, 심지어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함에 따라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보르도(프랑스), 에딘버러(스코틀

랜드), 피렌체(이탈리아), 맨체스터(영국)와 같은 다른 유럽 도시와 함께 시작된 계획의 틀 안에서 바르셀로나는 시민정보(citizen data, 공공분야에서 생성된 개인 및 공공 정보)를 개인과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림 2 > “일부 주민은 "슈퍼 블록" 발의에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디지털 혁신 위원인 Michael Donaldson은 "기술은 도시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디지털 배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정보는 기술이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시민, 경험, 지식을 모아 공공 영역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수집하고 무엇을 수집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2.2 똑똑하고 포용적인 도시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내년에 두 개의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거리 표면에서 생성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 사는 노인을 돕기 위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림 3> "슈퍼 블록"에서 건물은 자체 전기를 생성하고 잉여 에너지를 전기 회사에 판매합니다.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조교수인 Catherine D' Ignazio 교수는 도시를 진정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를 여성, 소수 민족, 장애인 등 이전에 무시되었을 수 있는 그룹을 고려하여 분석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성별, 인종 또는 접근성 측면에서 그다지 포용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엘리트 백인 남성에게는 정말 잘 작동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도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페미니스트 도시계획 협동조합 Punt 6는 바르셀로나의 일부는 여성, 어린이 및 노인의 이동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도시의 이동 패턴과 같은 영역에 주의를 기울여 균형을 회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영역과는 다른 영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3. 결론

D' Ignazio는 "우리는 차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접근 방식인 젠더 문제를 무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무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포용 도시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업들은 너무 자주 '우리는 A, B, C를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자원이 필요한 지방 정부는 '좋아요. 그럼 그것들을 처리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 그는 "기술 회사와 지방 정부는 둘 다 엘리트의 일원이며, 구성원의 대부분은 커뮤니티에 대한 깊은 헌신이 없는 백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문제목> La radical apuesta de Barcelona por convertirse en una ciudad inteligente con menos autos
<원문출처> BBC News World 6 january 2020